

가정문제 '주부토론마당' 열기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도 남편이 시어머니 품에 묶여 있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절망이라는 '벽'에 맞닿은 느낌이 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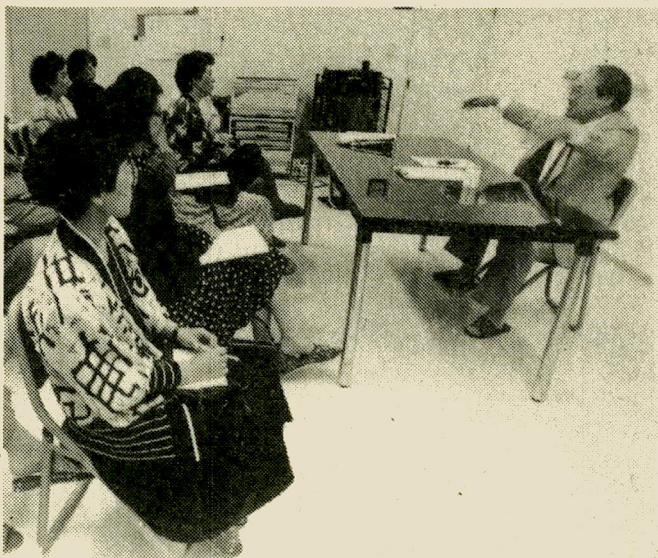
"여자들은 대체로 결혼이라는 절차를 통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편인데 남자를 가운데는 안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결혼하면 어머니에게서 독립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닐까요?"

18일 오전 10시 서울 방배동 한국심리교육·상담센터 교육실에서 열린 '주부토론마당'은 '시어머니로부터 남편의 독립'을 주제로 30여명의 주부들이 열린 토론을 벌였다. 주부들은 토론 진행자인 서울대 김계현 교수(심리학)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아들을 선호하는 가부장적인 사회풍토에서 결혼 뒤에도 어머니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남편들이 많고 이로 인해 고부갈등이 생기고 증폭되는 경우가 많다"는 풀이에 공감이 가는 듯 앞다퉈 자기 고민을 쏟아냈다.

토론이 마무리되어갈 무렵 주부들은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는 가족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고 입을 모으며 환한 얼굴로 토론장을 나섰다.

최근 교육·상담전문기관으로 문을 연 한국심리교육·상담센터(원장 임승환)가 가정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무료로 열고

부부불화·자녀문제 등 맘껏 토로 심리학 전공 전문가 상담 도움도



'주부토론마당'에서 가정문제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는 김계현 교수와 주부들.

있는 주부토론마당이 주부들에게서 호응을 얻고 있다. 18일까지 8차례 열린 토론마당은 매번 30~60명이 참여할 만큼 인기가 높다. 그동안 다룬 주제는 △남편과의 의견차이 △마음에 안드는 남편의 버릇 △자녀의 문과·이과 지원 △자녀의 적성과 흥미 등이다.

가정문제를 주제로 한 토론의 장으로는 국내에서 처음 마련된

주부토론마당은 주부들이 가정생활에서 겪는 크고 작은 갈등, 고민, 답답함 등을 맘껏 털어놓게 하는 독특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토론을 진행하는 김계현 교수는 "부부불화, 고부갈등, 자녀문제 등 주부들이 부딪치는 가정문제를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끼리 토론했으며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는데 반응이 좋

은 편"이라면서 "올해말까지 주부들과 함께 가정문제의 예방과 해결책을 찾는 토론마당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주부토론마당을 기획한 한국심리교육·상담센터 임승환 원장도 "본격적인 상담에 들어가기 전 단계로 마련한 토론마당에 더 많은 주부들이 참여해 가정문제로 인한 고민과 갈등의 실마리를 풀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가정문제로 인한 주부들의 고민과 갈등을 상담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사회단체나 백화점들이 앞다퉈 개설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심리학을 전공한 전문상담가가 개별 또는 집단상담을 진행하는 곳은 다음과 같다.

△한국인성심리상담연구소=한 가족 사회에서 좋은 부모-자녀관계를 만드는 부모역할훈련 중점 실시. 335-0971~2 △강남 상담 및 심리치료소=부부와 자녀 사이 문제,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자기성장 등. 517-3863 △한국심리교육·상담센터=성격유형검사를 활용한 교육, 주부들의 생활상 갈등 토론회 및 집단상담, 효과적인 자녀지도법 등. 599-9150 △홍유진 심리드라마연구소=드라마를 통해 심리적 장애 해소 및 치료. 761-1275 △한국정신건강상담소=개인 상담 전문. 514-0776 △한국가족치료연구소=가족문제에 대한 개인 또는 가족상담 전문. 652-2862

신/연숙 기자